

“힐링 명소’ 유기농 생태마을서 폭염 날리세요”

도, 친환경 농촌마을 휴가지 추천
농산물 수확 등 체험프로그램 다채
수려한 자연경관·생태공원 등 매력
민박·펜션·야영장 연계 이용 가능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촌 경관을 즐기고, 다양한 체
험을 할 수 있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힐링
명소로 적극 추천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기농 생태마을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아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마을이
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
을을 지정·육성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개소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여수 현천3구마을은 벼 생육체제를 할
수 있고, 인근에는 YMCA생태교육관과
여자만 갯노닐길이 있어 현천마을과 달천

해안도로를 따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가사리 생태숲과 생태공원
의 풍광은 자전거 라이딩과 산책하기에
좋다.

순천 공각마을은 보성강 주변에 자리한
고즈넉한 마을로, 농산물 수확·가공체험
과 트랙터 트레일러체험이 가능하다. 마
을 어귀 배롱나무와 550년 된 당산나무
노거수는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
다.

1927년 건립된 노안성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95%가 천주교 신자인
나주 계량마을은 농산물 수확체험, 꽃고
무신프린팅, 포토머그컵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하다.

담양 유촌마을은 활쏘기, 쌀엿 만들기,
패러글라이딩, 농산물 수확체험, 한과·피
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
며, 인근창평시장과 창평승로우시티에선

맛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담양 황덕마을
에선 한옥 민박이 가능하며, 영산강 습지
부터 마을 사이사이 골목을 트랙터로 누
비며 다양한 쌈 채소, 오색 토마토 등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곡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상한
마을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
다. 인근 계곡을 따라 자리한 하늘나리 캠
핑장에서 물놀이를 즐긴 후 백숙, 산채 나
물 등으로 식사하고 농가에서 민박도 가
능하다.

보성 영천마을은 계단식 차밭으로 국가
농업 유산 제11호에 등재된 천혜의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마을이다.
녹차 만들기, 티 블렌딩 등 체험을 할 수
있고, 휴집 민박도 운영 중이다.

해남 대인마을은 마을 카페에 들러 시
간을 보내거나, 떡·피자·쿠키만들기 체험
과 깨끗한 생태마을 투어도 할 수 있다. 마

을에는 80년대 울드카부터 100여대의 자
동차를 전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 ‘한
국차박물관’도 있어 자동차에 관심있는
방문객에게 제격이다.

영암 신안정마을은 월출산 아래 2000
년대 초부터 유기농 벼농사를 시작한 마
을로, 마을 커뮤니티공간(교육장)을 통
해 친환경 생태농업 확산에 앞장서고 있
으며 공유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로 유
기농 쌀피자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하다.
송내외마을은 인근에 왕인박사유적지, 월
출산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과 관광인프라
가 잘 구축돼 있다. 용두레도농교류센터
에서 숙박하고 허니라벤더팜에서 꽃을 구
경하며 라벤더청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영광 한시랑마을은 주변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원불교 영산성지 등 종교 성
지로 인기가. 마을 인근에서 서해 낙조 감

상이 가능하고, 농촌문화체험관 앞 캠핑
장(카라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인근 5분 거리에 있는 영광 산하마을도
한옥체험관에서 떡매치기, 오디잼, 보리
빵, 천연화장품만들기 등 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다.

평택담 상류지역에 자리잡은 장성 생촌
마을은 깨끗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
어 마을 도랑과 생태탐방로에서 다슬기 잡기
도 할 수 있다.

신안군 내양마을은 매년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명소로, 전통장류제조, 유
채기름짜기 체험과 펜션(수영장), 식당,
야영장 등을 연계해 이용 가능하다.

유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
농 생태마을은 지역 특색을 살린 환경친
화적 마을로, 가족·친구와 함께 방문해 잊
지 못할 여름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미래혁신산업펀드’ 5천억 조성한다

기업 글로벌 진출·투자 활성화
오늘 50억 규모 1호 결성 총회

전남도가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12개,
5000억원 규모의 ‘전남미래혁신산업펀
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8월 초 현재까지 지역창업초
기펀드 50억원, 혁신벤처펀드 470억 원,
산업협력펀드(R&D) 575억원을 조성했
다.

제1호 펀드인 지역창업초기펀드는 유
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
한 것이다. 본격적인 펀드 운용을 앞두고
8일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전남 지역창업
초기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를 개최한
다.

총회에선 조합원인 전남도, 광주시(광
주TP)와 운용사인 전남대학교기술지주
회사(주), (주)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

주가 참석해 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펀드는 모태펀드 30억원, 전남도 5억
원, 광주TP 5억원, 운용사 등 10억원의
자원을 결합해 조성됐다.

전남·광주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이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억
원까지 투자하며 전남기업의 경우 10개
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 기간 4년, 존속 기간 4년으로
2032년까지 총 8년간 운용할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1호 펀드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용사와 상
호 협력해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
고 투자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
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전북 소비촉진 판촉 행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이마트 광주점에서 열린 ‘2024 전북 소비촉진 판촉행
사’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 돌보미 지원

친정국가 출신 파견... 총 70시간
“결혼이주여성 어려움 해소 노력”

광주시는 출산 다문화가정에 친정국가
출신 산모돌보미를 파견, 산후조리에 필
요한 정보 제공과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광주에 거
주하면서 등록된 결혼이주여성고 고려인
산모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돌봄을 신
청할 수 있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
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
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돌봄은 한 가정당 1일 5시간 이내로 총
70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지원기
간은 올 12월31일까지다.

산모돌보미는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
조, 좌욕 보조,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
물 관리와 청결 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
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감염 예방·관리 등 육아에 필요한 각종 정
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산모의 친정국가 출신의 이점을
활용해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
항 응대,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정서
적 지지 등의 활동을 펼친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베트남, 태국, 필리
핀 등 6개국 출신 25명의 산모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산모돌보미로 활
동할 대상자 10명을 신규로 모집한다.

결혼이주여성이나 고려인 여성으로, 한
국 거주 3년 이상이거나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된 여성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
상의 능력을 갖추면 된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20
일 최종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후
35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산모돌보
미로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북구가족센터(062-363-2963)로 문의하
면 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과장은 “낯선 환경에서
출산해 정서적 지지와 돌봄이 필요한 다
문화가정에 산후 돌봄을 제공해 결혼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아
동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
한 지원책을 통해 부모가 편한 출생·양육
·돌봄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11개 시·군 51세 이상 1605명
근골격계 등 검진비 90% 지원

전남도는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
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 나잡어업에 주
로 종사해 남성 어업인보다 작업질환 유
병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검진
비의 90%를 보조해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은 6대 근골격계 질병, 방사선 활
영(요추·무릎·손), 골밀도 측정, 의사 신
체 진찰과 기능평가, 혈액검사, 청력검사
등이 포함돼 건강검진 후 의사 상담 및 사
후관리까지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됐다.

전남도는 2023년 4개 시군 시범사업을
실시, 올해 본격적인 여성어업인 특화건
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11개 시군 1605명을 확
정하고 지정의료기관 6개소를 통해 진료
를 실시한다.

특히 병원 접근성이 어려워 진료를 받

기 힘든 대상자를 위해 광주에 있는 소망
하나로병원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이동
버스 이용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지
정병원도 확대하고 있다.

검진을 바라는 여성어업인은 주소지 관
할 시군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특화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인 목포시 다윗365내과 재활의
학과 의원, 여수중앙병원, 완도대성병원
금일마취통증의학과, 진도한국병원,
(의)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에서 검
진을 받고 검진비의 10%를 납부하면 된
다.

전남도는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건
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상
자에게 주기적으로 일괄 문자 발송을 하
는 등 많은 여성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근골
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어업인이
건강검진을 통해 더 건강하게 어업에 종
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수산종자 방류 확대... 올 14종 2400만 마리 방류

전남도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
진해온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실제 생산
금액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 관련 사업을 확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988년 수산종자 방류
를 시작해 현재까지 410억 원을 들여 지
역 특성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

강한 우량종자 5억4000만 마리를 방류,
어족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방류한 종자에 대해
2007년부터 해역별·어종별 방류 효과 조
사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실시
한 결과, 방류 전보다 생산금액이 넘치
2.61배, 전북 2.97배, 대하 1.38배, 해상

1.45배, 참조기 1.47배, 감성돔 2.07배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42억원을 들여 14
개 연안 시군 해수면에 감성돔, 대하, 꽃
게, 전복, 해상 등 14개 품종, 2400만 마
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또 방류한 종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 준수 등
어업인 지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오지현 기자